



왕십리

2007년
3 월호

평신도 신학 / 교육목사 문병호 -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 지기
 하나님의 사람들 - 이한철 피택집사 - 어르신들의 친근한 벗
 특집 - 2007 청년부 중국동계단기선교 후기



주님 향한 열정을 품은 분
최경호 집사

첫번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 신원건 집사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최경호 집사님을 3월 왕십리 칭찬합시다의 인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듯이 무슨 말이든지 칭찬의 말을 들으면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매월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인을 선정해 그들의 활동을 알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2월호부터 '칭찬합시다'란 코너를 만들어 칭찬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주인공은 다음호에 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교인을 칭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멋진 최경호 집사님, 집사님의 섬김, 열정, 참으로 도전 받습니다. 항상 집사님 뵈면서 집사님처럼 열정을 다해 섬기자는 생 각합니다.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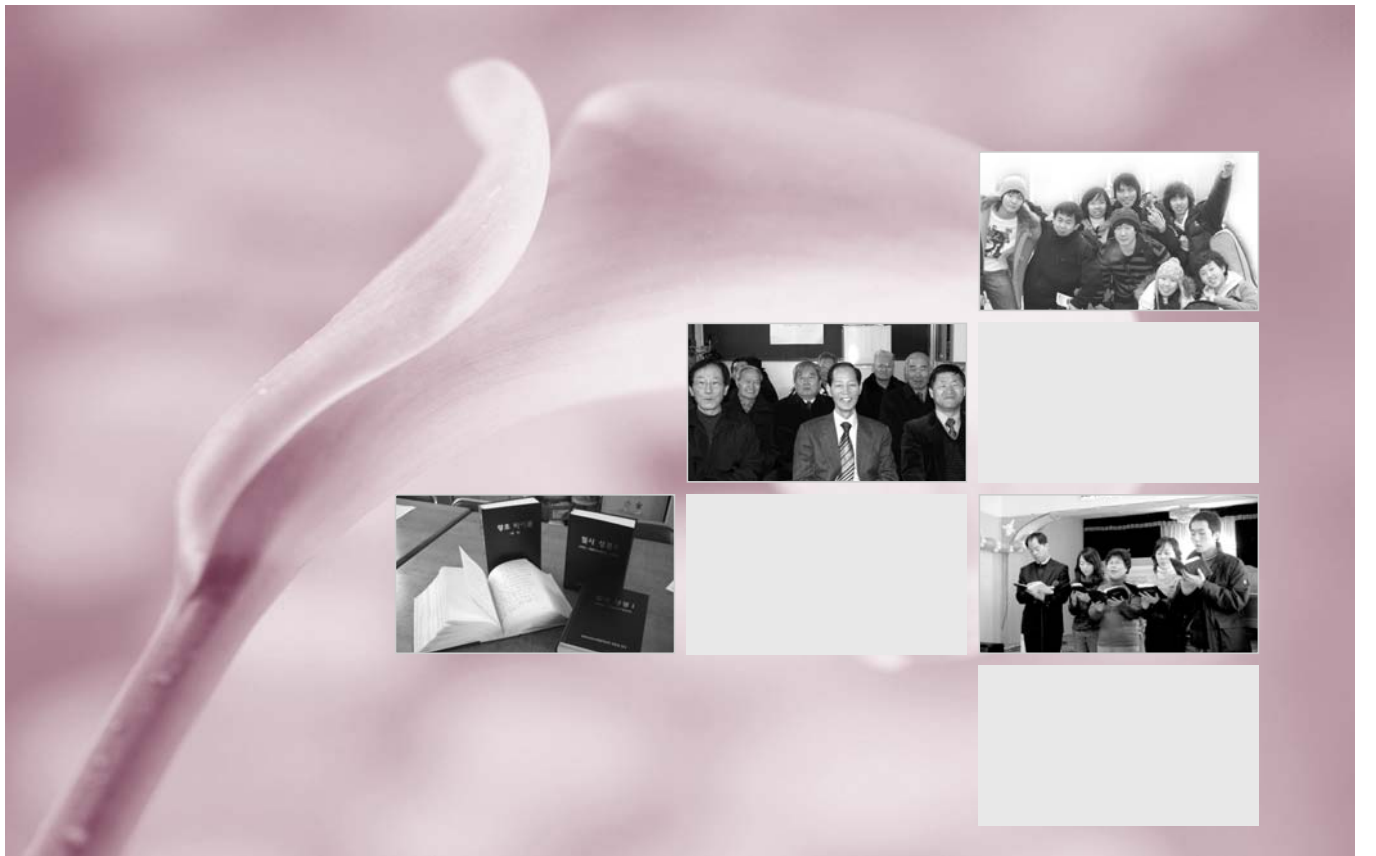
최경호 집사님! 청년으로서 집사님의 열정을 본받게 됩니다. 집사님 가정 안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최경호 집사님! 집사님의 헌신적인 군 사역으로 인해 어찌면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군인 형제들이 많은 위로 받고 힘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의 헌신에 동역하는 일꾼들이 많아져 더욱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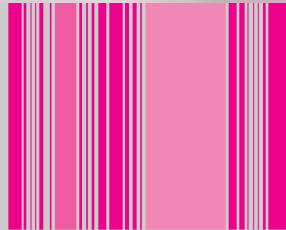
최경호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집사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원건 집사님이 저를 추천하셨다는 것이 뜻밖입니다.

제가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 된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시며 대화 내내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최경호 집사님. 주님을 영접한 날을 자신의 생일로 정하시고 생일감사예배를 드리신 지 20년이 되신 집사님은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윤혜 기자



Contents



2007. 3월호

2월 25일 그동안 당회실로 사용되어오던 공간이 장애우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첫 창립예배를 드리던 날 아름다운 수화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다.

- | | |
|--|--|
| <p>2 칭찬합시다
- 주님 향한 열정을 품은 분 \ 최경호집사</p> <p>4 출애굽단상
- 학익진과 모교회</p> <p>5 하나님 나라 사람들
- 어르신들의 친근한벗 \ 이한철 피택장로</p> <p>7 에티오피아에서 온 편지
- 사역 확장과 선교사의 버거움</p> <p>8 평신도 신학
-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 지기</p> <p>12 특집
- 중국 단기선교를 마치며 \ 청년부</p> <p>17 전도이야기
- 섬에서의 영적 전쟁</p> | <p>20 기획연재
- 새롭게 거듭나는 러시아</p> <p>23 우리집 작은 생각 큰 행복
- 과자, 다시 한 번 생각하기</p> <p>26 일상의 작은 그림
- 예수원 가는 길</p> <p>27 독서감상문
-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을 읽고</p> <p>28 가정예배</p> <p>32 신간도서 / 음반소개</p> <p>33 왕십리 이모저모</p> |
|--|--|

학익진(鶴翼陣)과 모교회(母教會)

담임목사 오치용

99주년을 맞이하고 나아가 100주년을 내다보는 왕십리교회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감동 한 가지를 글로 남기고 싶다. 먼저, 학익진이다. 군사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나로서는 이순신의 학익진에 대해서 그저 궁금하기만 하였다. 어려서부터 학익진이란 말을 들을 때 그저 꿈속의 이야기 같았다. 이순신 장군과 학익진이 동시에 생각되는 정도였다. 한산도해전의 일이다. 이 해전은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 기억될 만큼 역사에 길이 남을 대첩이었다. 이날 태워지고 파괴된 왜선의 수는 모두 59척. 물리친 적의 수는 모두 8,98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한산대첩의 백미는 물론 학익진이다. 그것은 판옥선이 제자리선회가 가능한 평저선이라는 데서 착안한 이순신만의 창의적인 진형이었다. 학익진은 말 그대로 학의 날개와 같은 모양을 하여 적을 포위하는 진이다. 원래 학익진은 육상에서의 전법이다. 그래서 한산대첩에 출전하기 전에 권율 등 많은 장군들은 학익진의 성공률을 매우 희박하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을 펼쳐 일본해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왜군은 육지전에 강할 뿐 아니라 신무기인 조총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떨쩍이 떨어져서 우리의 주 무기인 함포로 공격을 하며 바다에서 진을 펼쳐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순신장군이 생각한 필승의 전략이었다.

이 시대 우리들이 영적인 적을 만난다면 그저 무조건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맞붙을 것인가. 2007년 7월 8일의 영적인 전투는 어떠할까. 한국교회는 그 때 난지도 상암대회를 전후하여 학익진의 양 날개를 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개로 부터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화포 속에서 한국교회는 7월 8일 전후 2주간 한국사회의 관심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리라. 그리고 교회들이 그 깊은 이유를 알고 전략과 전투에 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회설립 99주년을 맞이하는 왕십리교회는 2007년에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 국민출애굽의 대장정을 한국교회와 함께 출발하면서 학익진의 승리를 거두고 나아가서 새롭게 출발되는 한국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왕십리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평양 장대현교회의 재현의 복이다. 그렇지만 장대현교회가 중단된 것과 같은 일을 겪지 않고 더욱 더 부흥하여서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는 일이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한다. 겸손하면 새로운 한국교회의 모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언제나 한 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바로 선택. 오직 그 선택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99주년을 맞는 왕십리교회를 향해, 어떻게 보면 좀 편견 같은 덕담을 기념사로 남긴다.



어르신들의 친근한 벗

이한철 피택장로

이번 호에서는 이한철 피택장로의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고3때 상왕십리에 위치한 영경학원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하던 선교사를 만나 이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몬교회에 2개월 정도를 다니기도 했지요.

고향인 전북 부안 동진면에 있는 동진 장로교회 담임을 하던 전창수 목사님을 도와 중등구락부를 조직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농어촌 계몽 운동을 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에 17년간 근무하는 동안에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약한 개척교회만 섬기다가 1992년 초에 유니게 전도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아내 송형애 권사의 인도로 왕십리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낮 예배만 드리던 중 1996년에 처음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가족은 송형애 권사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 3월에 잠실에서 LSK영어 학원을 열기 위

해 준비 중입니다. 둘째 아들은 게임 제작회사 개발부에 근무 중입니다.

◆ 장로로 피택 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은퇴할 나이인데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완고한 유교 가문에서 제가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형제, 자매를 구원시켜 우리 가문에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장로로 피택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퇴할 때 까지 불과 2년남았지만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 어떤 모습으로 섬기실 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던 자신을 낮추고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덕을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 교회 설립 100주년과 건축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0년된 교회

의 재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교회 본당을 들어설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의 열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는 형식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역사성을 보존할 것인지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담당하고 계신 경로가정대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초대 학감이신 이상목 장로님께서 담임목사님 요청을 받고 다른 교회를 견학하며 준비했지요. 2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며 준비해 199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대 학감인 김용수 장로님께서 8년 동안 기도와 많은 물질로 섬기는 가운데 200명 이상의 인원이 출석해 소그룹별로 각 반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율동반, 성경공부반, 한글공부반, 건강체조반, 바둑·장기반, 서예반, 장구반, 하모니카반 등의 특활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침술과 이미용 봉사도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가정대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과정과 컴퓨터반, 웃음치료반, 지압치료반, 법률상담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충권 지도목사님, 부감 김정희 권사님, 총무 유선열 권사님, 서기 강은자 권사님, 회계 김혜경 집사님, 교사들과 논의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 **교회 건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교회의 건물이 좋아야 부흥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지역주민을 외면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휴식하며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적 개념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면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성전건축을 할 수 있으며 자연적으로 교회 부흥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년에 10억씩 3년 동안 30억 원 성전건축기금을 조성기로 한 결정은 만사지탄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역량을 새성전 건축하는데 집중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목표액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사역에 눈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백봉산의 기도원과 문막 제 2기도원에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과 장묘문화 시설을 정부 지원금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십리 성전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쉼터 개념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면 정부지원금을 받고 교회에서 준비한 건축기금으로 새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는 칭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너무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라고 평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사람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 항상 양보하고 손해만 보는 사람이야’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들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배려하는 덕스러운 삶을 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뿐 아니라 축복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병수 기자

사역 확장과 선교사의 버거움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2005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매주간 8개 마을을 돌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1년 단기로 온 웨인 켈리가 가르치는 자를 자신의 차로 데리고 다니겠다는 의사를 전해 와서, 새로운 3개 마을을 더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 3명에게 8개 마을을 맡기고, 나는 새로운 3개 마을을 돌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11개 마을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성경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글자 공부와 더불어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40명가량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더 가르쳐 달라는 성화에 이제는 시간을 늘려 산수와 영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총이나 화살을, 다른 손에는 공책을 들고 수요일 아침 일찍부터 찾아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았거나 지각을 하면 선교사로부터 벌을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예꾸디가의 추장을 비롯한 이 굼즈 전사들에게 소리치고 벌을 주는 이는 선교사가 유일할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모여 성경과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25명 중 대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생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라고 모두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아내가 둘이나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시부터 나무그늘 학교(요즈음은 교실에서 모입니다)에 아이들이 모여 아내로부터 글자와 숫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6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는 40도가 넘는 띄약별 아래 한 시간에 이르는 산길을 걸어와 배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울동과 함께 신나게 불러댁니다. 요즈음 굼즈의 히트곡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에서, 산에서, 밭에서 이 노래를 불러댁니다.

주일에는 예배 전에 전체 주일학교로 모여 구약을 배우고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차례대로 설교를 듣습니다. 평상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약 80명, 어떤 날들은 100명이 훨씬 넘고, 어느날은 160명까지 모인 적이 있습니다. 굼즈 사람들과 몇몇 아이들까지도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역이 확장되고 반응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마음은 기쁨만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 얼마나 되는 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언제 이것이 무너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선교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교차되고 있습니다. 사역은 확장되고 활기를 띠는 것 같은데 선교사의 마음과 몸은 자꾸만 힘들고 무거워지고만 있습니다. 육체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과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홀로 버텨 나가고 있다는 버거움의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영하 8도라고 하는 서울과 무려 50도가 차이 나는 굼즈의 무더위를 중년의 심장이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굼즈 글을 배우고 있는 아이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 지키기



문병호 교육목사

1. 미래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지상에서 나그네 된 하나님의 자녀가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잔에 채우는 것이다. 곧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후 5:1).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고 그 집을 맡으셔서 우리가 그 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히 3:6).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려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섰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시 39:4~5). 인생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태어남이 죽음보다 즐겁지 아니하며 장수함이 단명함보다 복되지 아니하다(전 4:2~3). 우리는 모두 이 땅의 객이며 나그네로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대상 29:15; 레 25:23; 시 119:19; 뱀전 2:11).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미리 취하고 산다. 그러므로 미래를 묵상함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이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거나 찬송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내 앞에 놓인 고난을 소망 가운데 감당하면서 간혹 하늘을 바라볼 때 섯뿔 섯뿔 비취는 여호와의 영광스런 광채가 우리



즐거움의 샘이며 소망이 된다.

이 땅의 삶은 하늘에 이르는 여정이다. 믿음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간다(히 11:13~16). 한번 죽음은 정한 것이나 죽음으로써 육신의 장막을 벗어 버리고 별거벗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덧입고(고후 5:2~4) 부활의 다음 열매로 나타난다(고전 15:20~26). 그리하여 지상의 삶은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며, 육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나며,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것으로 나며, 미래를 바라는 여정이다(고전 15:42~44).

그러므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로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며 믿는바 도리를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눅 21:28).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와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쓰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라. 세상 염려를 없이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라(고전 7:29~32). 무엇보다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풍부와 비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라(빌 4:11~13). 지혜 있는 청지기과 같이 말세에 주님의 뜻을 분변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눅 16:1~13) 오직 위로를 삼을 것은 주의 소명에 충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2.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

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에 있다(We are not our own, but God's).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세워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을 매고 그의 짐을 진다. 그리스도의 명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마 11:3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히 3:1)이라고 부른다.

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cf. 고전 3:16~17).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롬 14:8; 고전 3:23).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갈 2:20).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갈 5:16~17)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아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전 4:7).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한다. 자기애와 자기 자랑을 버려서 자기 자신을 미물에 두고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겐 구경거리”가 되며(고전 5:9)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된다(고전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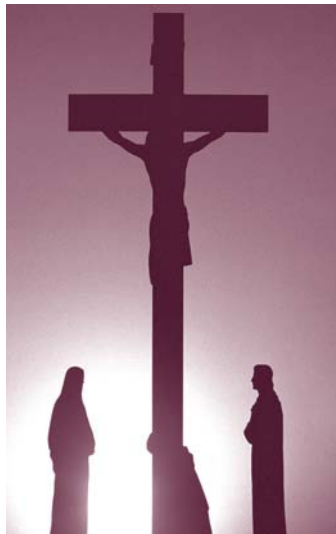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 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4:10~11). 주님의 십

자가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곳이다(히 5:8). 자기를 향해서 절망으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곳이 십자가이다. 세상과 맞서는 고난이 상급으로서 인침 받는 곳이 십자가이다. 사망이 생명이 되는 역설의 공간이 십자가이다. 잠시가 영원이 되고 침묵이 선포가 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절규가 다 이룸이 되는 곳이 십자가이다(마 27:46; 요 19:30). 하나님만의 필연성(necessities)으로 휘장이 놓이고 또 갈라지는 곳이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체이다.

3.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살전 4:3~8).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히 3:1)이라고 부른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0, 14).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대항’하기를 원하신다(히 12:4).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징계하시되 이로써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히 12:10). 하




나눔은 우리를 천국의 곳간에 들이는 알곡으로 비유하셨다(마 13장 참조).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씨앗을 마련하실 때 옥토까지 마련하신다. 오직 마리아의 태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듯이, 우리도 선택된 씨앗으로서 선택된 땅에서 조성된 것이다.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 때에는 젖이 필요하고, 조금 더 자라면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유모이고 학교라고 칼빈은 말했다.

성화는 씨앗이 옥토에서 자라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받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로 말미암아 지식과 능력에 새로움을 받아서 거룩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본질상 은혜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로 말미암아 율법의 실체가 드러나고 율법의 의가 완성되었을 뿐 새로운 법은 없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신비주의는 구속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가르침도 사술(邪術)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법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법이다. 그리스도가 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첫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실체가 온전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채움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며, 셋째,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

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담대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으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히 2:18).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하심을 체휼하신다(히 4:15).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서(엡 4:24)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 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골 3:10)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써(히 4:14, 16)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체화(體化)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좇아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자와 같이 은혜를 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다(갈 2:20). 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자는 주님의 명을 매고 주님의 짐을 지고(마 11:29) 자유하나 스스로 남에게 종이 되는(갈 5:13) 것이다. 그러므로써 주님의 창조주로서의 사랑과 구속주로서의 사랑을 모본(模本) 삼아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9, 12~14).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친구 되는 삶이다. 



중국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청년부

지난 2월 5일~10일, 5박 6일간 김귀라 목사의 인솔 하에 7명의 청년들이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중국 단기 선교의 주 사역은 가정교회의 방문과 중국 성도들에게 성경책과 주석 등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방문한 지역은 외국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방문해야 했다. 방문한 중국의 가정 교회는 지금 동방 번개라는 이단의 활개로 분열과 시련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청년들의 중국 가정교회 방문은 중국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단기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보자.

1. 이지영

중국 J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중국 땅과 우리 팀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왔는데,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롭게 결정된 우리의 주 사역은 G지역의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현지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며, 성경책과 주석 등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이고, 현

지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어두울 때 이동하고, 중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을 하지 않은 채로 버스로 몇 시간을 가야 하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G지역 교회로 가기 위해 깜깜한 밤에 무거운 짐을 메고 1시간 정도 산길을 올라갔던 시간이다. 무척 힘들 수 있었지만, 누구하나 힘들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갈수록 힘이 났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오셨던 할아버지 한분과 함께 걸었다. 작은 불빛으로 서로를 비추면서 함께 걷는 동안,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정말 따뜻하고 힘이 되었다. 주안에 한 가족 됨을 충분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는 정말 허름하고, 성도들의 삶 역시 초라하다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 앞에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단기선교를 위해 두 가지 기도제목이 있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또, 우리 팀원들 모두가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 주님은 이 기도제목을 모두 이루어 주셨



다. 너무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큰 믿음의 도약을 했다고 믿는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새기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했던 5박 6일의 시간을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셨던 많은 성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2. 임채상

선교를 가기 전 나에겐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중국단기선교를 통해 주님은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셨다. 물론 그 전에 갔었던 단기선교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있었지만, 그저 외국에 한번 나갔다 와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번에는 한 나라 한 나라를 품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다.

솔직히 미안하게도 단기선교를 가기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이번 중국단기선교는 나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킨 것 같다.

주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서 몰래 숨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 더욱 부끄러웠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

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었다.

중국이란 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더욱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중국을 다녀와서 변화된 나의 생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것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더 중요한 마음을 주셨다. 그것은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선교의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촬영 한 것을 편집하고 그곳의 상황과 선교사님들의 모습뿐 아니라 소식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며 더욱 나아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길 원하셨다.

이것이 중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지게 된 나만의 선교이다. 짧지만 길었던 5박6일간의 일정동안 함께 동행하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한 팀을 이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준 선교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러나. 한국에서 중국 팀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 나만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3. 최은형

출발 일주일을 남겨두고, 가기로 결정한 단기선교였다. 짧은 준비기간은 나를 더욱 두렵게 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설렘으로 바꿔주었다.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하셨지만, 나는 전혀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좋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교회성도들과 안타까운 상황들 앞에서 많이 힘들어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희망이 생겼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4. 박수남

처음 떠나는 선교여행은 나에게 준비부터 낯설고 두렵기게 하였다. 내가 준비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태권도였다. 태권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길 바라며 기도로 준비기간 동안 약 2주정도 미팅과 연습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협력을 다져나갔다. 준비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일로 팀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팀원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2월 5일 중국 땅에 도착하니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순간 압도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혁 이러면 안 되지’ 속으로 강한 다짐을 하며 가정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버스로 5시간, 다시 산길로 1시간을 걸어야 하는 곳이었다. 가는 길부터 우리는 전쟁 아닌 전쟁을 했다.

어렵게 도착한 가정교회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가슴속에 말씀들을 주셨다.

“네가 이제까지 얼마나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알고 있느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묵상을 마치고 오전집회를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집회에 올 것이라고 예상한 인원은 7명. 하지만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집회가 시작되고, 결국 여기저기서 모인 약 2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다.

김윤수 형제의 마술을 시작으로 태권도, 드라마, 워십, 격파, 말씀, 간증 순으로 진행을 했다.

내가 맡은 것은 태권도 사역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보는 태권도였지만 다들 즐거워했다. 속으로 외쳤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전 집회를 마치고 현지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이동을 했다.

이번에는 우리를 가이드 해주고 있는 자매들의 집이었다. 산으로 걸어서 1시간 20분, 다시 버스를 타고 2시간정도 가야 하는 곳이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했다.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진도 찍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매 집에서 1박을 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헤어지다니 너무나 아쉬웠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데 다들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우리를 가이드 해주던 자매들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단기선교 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고마운 분들이 너무도 많다. 선교사님 내외분, 목사님, 우리 팀,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분들 등등.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선교로 인해 내 신앙생활에 조금은 변화가 생겼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하며 이번 단기선교를 마친다.

5. 윤혁민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해보는 해외여행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더욱 기쁘고 발걸음이 가벼웠다. 사실 그곳에서의 느낌, 그곳의 모습, 상황, 현지 가정교회 성도들의 순수함은 정말 가봐야 알 수 있다. 부족하지만 글로 옮겨본다.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정해진 시간 없이 거의 상황에 맞게 움직였다. 내일 일은 모르는 '널 몰라 패밀리'가 우리 팀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원했던 것이 더욱 풍성히 더해졌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우리가 만났던 현지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를 도와 주셨던 두 자매도 이것을 느

꼈을 것이다. 자매들이 우리가 그 마을에 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히 마을로 들어가, 준비해온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마을에 외국인인 온 것은 우리 팀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곳은 외국인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동행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마을을 떠났다.

시골교회에서 나와 돌아가는 중, 기차를 탔는데, 그 속에서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팀, 그리고 두 자매(현지교회)와 함께 게임을 했다. 007뽕, 쥐를 잡자 등 중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모여서 하는 게임 문화가 없다고 했다. 한마음으로 순수하게 게임을 하니 그저 즐겁고, 주위의 중국인들도 무슨 일 인지 구경하고 같이 웃고 했다. 정말 5시간 넘게 기차를 탔지만, 길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그곳의 두 자매를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진다. 새벽기도회를 5시에 시작해서 두 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고 한다. 우리도 한 시간 반 정도 드렸지만, 쉽지 않았다. 힘든 상황일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더욱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곳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그곳에서 20살의 어린 나이이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자매를 위해 또 나아가 중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6. 김윤수

굉장히 힘들었다.

사실 5박 6일의 일정 중에서 이동시간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 짐과 팀의 공용 짐까지 합하면 무게가 꽤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이동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동하는 버스나 택시, 비행기에서는 모두들 피곤해서 머리로 방아를 찧기 일쑤였다. 하지만 힘이 들었던 만큼 느낀 점이 많았다.

우리 팀이 갔던 곳이 중국 오지 중에서도 오지였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중국은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문화라서 그런 지역 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막상 가 보니 우리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에게서는 조금 충격이었다.

나의 신앙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고, 성경은 그냥 책일 뿐이다 하면서 읽지 않았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겠다고 결심해놓고서는 작심 삼일의 표본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지 못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또 넓은

자신들의 나라 중국 땅을 향해 비전을 품기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뭘야!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 좋은 환경에 있고 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데, 저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저렇게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을 품고 있잖아!’

사실 이번 중국단기선교가 처음이 아닌데 이렇게 힘들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선교를 기점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지은정 기자





20여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충현 교회에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총신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나는 언젠가 하기 방학을 맞이하여 대학생 봉사 팀을 이끌고 서해안의 한 무명의 섬에 전도활동을 간 일이 있었다.



박상영 부목사

섬에서의 영적 전쟁

그 섬의 이름은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팀원들은 아마 15명 정도였다고 기억이 된다. 충남의 어느 해변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두를 떠나 섬으로 향했다. 연락선이라고는 하지만 정규 연락선이 아니고 흔한 조그만 배였다.

한두 시간을 갔을까 바람이 약간 불고 상당히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한 후 우리는 드디어 무명의 섬에 도착하였다. 섬은 반경이 약 4~6Km정도 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는 여장을 풀고 숙소를 정하였다. 그 섬의 교회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전도사님은 나와 같이 간 장로님에게 특별히 방을 하나 배치하여 주셨다. 팀원들은 곧 둘씩 짝을 지어 가가호호 축호전도를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집회 오기를 고대하며 나는 교회로 돌아와서 저녁 부흥집회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지만 예배당 안에 사람들은 별로 모이질 않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인원을 모아 놓고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저녁 전도 집회 후 우리는 다음날의 축호전도를 약속하고 잠이 들었다. 나는 같이 동행한 장로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여독에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꿈에 머리를 깎은 중이 나타났다. 그는 거인이었고 크나큰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큰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 거인 중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중에게 대항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나는 힘이 부족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그 중은 곧 달려들어 칼로 나의 목을 자르려고 양손으로 칼을 잡고 칼날을 목 쪽으로 향하여 내리 눌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칼을 붙들고 저항하였다. 만일 조금만 을 빼면 나의 목은 그야말로 단두대의 목처럼 두 동강이로 잘릴 판이었다. 그런데 저항하던 팔에서는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칼날은 거의 내 목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큰 검은 칼과 빛나는 칼날은 충분히 나의 목을 두 동강이로 만들 것이라고 여기며 자포자기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갑자기 검은 칼 위에 하얀 십자가가 나타났다. 그 십자가는 아주 작아서 처음 생각하기를 '왜 저 검은 큰 칼 위에 십자가를 조각해 놓았지'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십자가는 그 칼을 막기 위해 나타난 십자가였

다. 그 하얀 십자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큰 소리로 그 중에게 외쳤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순간적인 일이었다. 그 거인 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옆에는 장로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새벽 4시 쯤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장로님을 깨웠다. “장로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섬에는 악한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장로님과 함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사단의 세력을 진멸시켜 주시고 오늘의 전도활동을 통하여 크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은 오전부터 모여 간절히 기도한 후 2~3 사람씩 짝을 지어 섬 전역으로 전도활동을 나갔다. 나도 역시 축호전도를 나갔는데 의외로 섬 주민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점심때가 되어 어느 집에서는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섬의 구석구석과 섬기슭의 오솔길을 따라 나아가며 섬 주민들의 집을 찾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린 대속의 사랑을 전하였다. 많은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억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저녁 집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에 돌아와서 저녁집회를 준비하였다. 예배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예배당을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할 수없이 예배장소를 바닷가의 모래사장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회는 해변에 있었기 때문에 곧 야외 강대상이 설치되었고 전기시설도 설치되었다. 사람들은 시원한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되었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저녁 바다가 시원한 바닷바람에 따라 물결치고 있었다. 밤하늘은 마치

하나님께서 끝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부어 주실 듯이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이 검은 구름 사이에서 아름답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전하였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해변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다. 청중들은 큰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회 장소를 정리할 때의 일이다.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파도가 성난 사자처럼 포효하기 시작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교회로 급히 피신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자마자 소낙비가 오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토록 정확하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니.

니. 만일 전도 집회 중에 비가 내가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만일이 바람과 소낙비가 내일도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인들은 좀처럼 소낙비가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을 해주었다. 그리고 배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심하게 폭우가 내려도 배는 출항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는 내일 오전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 있었다. 모든 체제 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놓았기 때문에 만일 폭풍때문에 배가 출항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밥을 굶어야 할 판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무명의 섬에 자녀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할 것인가. 또한 언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 질지 기약이 없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대원들은 간절히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고 소낙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단 꿀 같은 잠을 잤다. 어제의 영적 승리는 깊은 숙면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는 정신을 차리자 먼저 밖에 비가 오는가를 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

리지 않았다. 일단 안심이었다. 새벽기도를 마친 후 나는 바닷가에 나갔다. 동편의 바다를 보는 순간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새벽하늘이 마침 떠오르는 태양에 의해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태양을 본 적이 없다. 마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시위나 하듯이 태양은 동편 바다 위에서 힘 있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토록 정확하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니. 아침 식사 후 교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가 탄 배는 무명의 섬을 멀리하며 마치 보물섬을 점령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푸르고 푸른 바다를 헤치며 기쁨 중에서 육지를 향하여 나아갔다.

이 무명의 섬의 전도활동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먼저 전도는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새롭게 거듭나 는 러시아

김남수 특사

#1 부활을 꿈꾸는 땅, 러시아

지난 2월 잠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주변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단지 일년만에 방문한 러시아였지만 그 일년이라는 시간은 블라디보스토크가 변하는데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공항의 모습과 시골의 작은 집들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도시 가운데 흐르는 변화의 물결은 확연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빌딩과 여기 저기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러시아 경제가 7%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한산했던 거리는 일본의 자동차들로 가득 채워져 서울 도심의 교통체증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앞 바다의 작은 섬, 루스키 섬에 동양 최대의 카지노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설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를 새로운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러시아의 변화는 단지 작은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의 회복을 꿈꾸며 용비의 날개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2 전략적 요충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하나의 계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맞닿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시엔 중국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4개국의 접견지인 셈이며 선교적 요충지인 셈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 도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내 여타의 도시에 비해서 더욱 엄격한 통제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단체들의 관심을 갖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1. 블라디보스토크는 1907년에 제주도로 파송한 이기풍 목사님을 제외한다면, 1909년에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해외 선교지입니다.
2. 이 지역은 과거 임시정부가 있었던 최초의 독립군 기지가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3. 과거 구소련시절 강제 이주를 비롯해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아픔의 현상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빛진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4. 이 지역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서 북한 선교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는 지역입니다.
5. 이 지역은 중국과 인접하여 있어서 중국을 향한 선교만이 아니라 중국성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6. 이 지역은 한국교회가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그 터전을 삼을만한 전략적인 요충도시입니다.

#3 러시아를 깨우는 복음사역.

러시아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개신교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종교로 인식하고 있어서 규제와 통제가 여전한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군정부와 러시아 정교회간의 잦은 회합에서 보여주듯이 러시아는 국민들의 정신적 지지대로서 정교회를 다 시금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푸틴은 “러시아에 있어서 핵무기 체제와 러시아 정교회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서 정교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러시아인들의 정교회 출석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 정교회는 복음의 확산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취함으로써 자기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러시아 정교회의 회복은 기독교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복음의 신속한 전파와 기독교의 긍정적 수용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교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러시아의 복음화는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4 효과적인 선교전략

3차례에 걸친 블라디보스토크 단기선교를 통해서 얻게 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정적이고 침체된 예배분위기를 새롭게 할 예배갱신과 찬양사역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찬양사역과 찬양 곡의 보급이 교회를 뜨겁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2. 이 지역 선교사 및 선교단체들 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와 연합을 통해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방법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



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료 공유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한 연합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기독교가 여타의 이단종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문화의식이 높은 민족이기에 문화적인 접근이 러시아인들 사이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의 매개체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러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입니다.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교회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서 세우고 섬길 성도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성령의 바람이 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꿈꾸며

관광지로서의 러시아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광활한 산림자원과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이 있

어 새로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어둠의 영이 강하게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거리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람처럼 마음껏 그리고 기쁨으로 호탕하게 웃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언제나 진지하고 근심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비록 러시아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와 러시아 남성들의 건장한 신체 조건이 다른나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있지만 그들 속에 숨겨진 억눌린 영혼은 언제나 해방과 구원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급한 부르짖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우리들은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집 작은 생각 큰 행복

과자, 다시 한번 생각하기

2006년 3월 8일 모 방송국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과자에 들어 있는 수백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자료를 통해 보도하였다. 이 방송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과자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보여주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과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과자 매출에 영향을 주었고, 제과 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반발했다.

과자의 첨가물에 대한 방송 후 몇 달 뒤, 5월 17일 추적 60분은 다시 과자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해서 방영했다. 납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축

척량이 늘어가지만 이상하게도 알루미늄은 나이가 어릴수록 체내 축적량이 늘어가는 이유를 과자에서 찾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1월 11일 "과자와 아토피 사이에 직접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특정 식품에 대해 식약청이 임상실험까지 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과자 공포 때문이었다. 공영방송의 힘이 미친 결과이지만, 아쉽게도 발표의 내용으로 과자의 공포는 잠잠하게 되었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과자는, 내용물에 있어서 그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자 회사에서 16년간 근무하다 과자의 해독을 직접 체험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후델 식품건강연구소를 연 안병수 소장은 자신의 책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국일 미디어)에서 "가공식품이 아이의 몸을 망칠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 범죄 등의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선천성 장애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과자의 폐해는 심득할 정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수천 종에 이르는 식품 첨가물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600여 종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식품 첨가물이 든 식품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소한 멀리 해야 할 대표적인 유해 첨가물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자류의 문제가 단순히 식





품 첨가물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는 트랜스 지방에 대한 문제와 가공과정, 중금속과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아래의 식품 첨가물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결국 과자를 만드는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질산염

아질산염은 원래 독극물이라서 웬만한 식품첨가물 점에서

도 쉽게 구하기 어렵다. 동물 실험 결과 체내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 시키는 인자인 나이트로 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전환되는데 체중 1g 당 0.3u(마이크로그램)가 체내 축적되면 간암과 폐암을 유발한다.

색소용도로도 쓰이면서 방부제와 조미료의 역할을 같이 하며 고기의 비리거나 거친 맛을 부드럽게 하고 색깔도 구미를 당기도록 선홍색을 띠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질산염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가공품 즉, 햄과 소시지 햄버거 등과 젓갈류 등이다. 독일에서는 햄과 소시지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 C, J 등 대형 식품 업체들의 햄과 소시지 제품 등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일부 친환경 식품을 만드는 소규모 회사의 제품에서 아질산염을 뺀 제품을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대형 식품회사는 아직 동참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솔빈산칼륨

솔빈산은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첨가물로 마가린, 간장, 청량음료, 절임류 등



에 사용된다. 솔빈산이 들어간 잼과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햄을 함께 먹으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돌연변이를 야기 시키며 유전자 손상을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르

담배 타르와 같은 성분으로, 콜타르의 원료인 석유에서 추출된 석유계 화학물질이다.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 시 벤젠으로 전환돼 발암물질을 유발한다.

식용색소 황색 2호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주로 들어 있는데 사탕, 음료, 빙과 등에 주로 많이 들어 있다.

—인공감미료(아스파탐)

무설탕제품, Non-Calorie 제품이라고 알려진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크다칼륨 사카린 등으로 맛을 내는 것으로 칼로리는 없으나 단맛을 낸다.

당뇨환자의 경우에만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 등을 마시는 것이 나을 뿐 일반인들은 차라리 설탕을 넣어 만든 콜라가 낫다고 한다.

지난 5월 영국 BBC 방송은 이탈리아 암연구소의 모란도 소프리티 박사가 암전문지 ‘유럽임상종양학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섭취량이 많을수록 백혈병이나 임파선 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공감미료를 인체에 좋은 것으로 잘못 오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안식향나트륨

식용색소 적색 2호로 미국에서는 사용금지로 되어 있다. 발암물질 만드는 물질로 세균번식 막는 것 유전자 파괴 등이 문제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강장드링크 라고 널리 광고하고 있는 드링크 등이 대부분의 성분이 안식향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다.



—L-글루탐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륨은 MSG로 알려진 인공조미료로 특히 ‘중국음식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음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 ‘중국음식 증후군’이라고 하는 글루탐산에 중독되면 안면마비와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낸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맛소금이나 화학조미료에 많이 들어 있고 특히 어린이와 젊은 층이 즐겨 먹는 라면에 다량 함유돼 있다.

식품첨가물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른생활식품실천연대 김수현 소장은 “해독작용이 있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고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는 한편 바나나 등 수입 과일과 야채에는 농약과 방부제 등이 다량 함유되어 안전성에 크게 미흡하다”며 건강한 식품을 선택해 먹도록 권고했다. 🍌

지은정 기자

예수원 가는 길

지소영

한 겨울이면
영화 러브스토리의 장면보다
더 큰사한 배경이
예수원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하얀 눈 위에
친구와 드러누워 바라보던
태백산 골짜기의 파란 하늘은
제가 유난히 아끼는 추억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다시 찾고픈 고향처럼
가슴에 묻어 두었던 곳엘
드디어 다녀왔지요.

서울보다는
봄벌이 늦게 드는 곳.
아직은 꽃들이 봄단장을 마치지 않아
누군가는 황량한 풍경이라 말했지만
마른가지 밀어내고 나오는
연두 빛 어린 새싹도 나름대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잠시 바위 위에 걸터앉았다가
도마뱀을 보고 놀라 소리쳤는데
제 소리에 도마뱀이 더 당황하며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이제 막 잠이 깬 듯 기어 나오는
땅 속의 벌레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바위틈으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키다리 할아버지.....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었지만
남은 가족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오래 전 설날 아침,
예수원 기도실 폐치가 앞에서
그 분과 장작불 지피던 때를
다시금 기억나게 했습니다.

짧은 일정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신부님의 추모영상 자료를 정리하며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엮으며
혼자 앉아 담담히 흐느꼈습니다.

신부님의 마음속엔 모든 사람이
머물다 갈 방이 있었다고
어떤 분은 이야기 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단순하셨고
곳은일을 앞서 실천하면서도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았던 분.
이성적 사고와 소년 같은 감성을 지니셨던 분.
대천덕 신부님은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그러나 선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보았던 예수원 가는 길.....
눈 쌓인 한 겨울의 길.
수풀 우거진 한 여름의 길.
그리고 이번처럼
파릇파릇 봄 이파리가 올라오는 길.

사십여 년 전,
험한 태백산 중턱에 길을 내신 신부님은
이제 그 곳에 없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엔
그분의 삶의 흔적과
예수원 가는 길이
더 뚜렷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겐 너무나 값진 여행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을 읽고

-충명하고 현명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교육-



최지영 집사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가정의 밥상은 영양이 풍부해진다. 그 속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보기에만 먹음직스럽고 영양만점인 밥상이지만 그 속에 화목과 사랑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대화가 단절된 가정,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넘쳐나는 사회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그런 사실을 느낄 수 있다.

간단한 식사 예절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면 이 사회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사회의 모든 범죄도 최소화되리라 믿는다. 도덕심도 회복되어 우리 사회가 밝아짐으로 미래는 희망적일 것이다.

우리는 밥상에서 어른이 먼저 손가락을 집어서 드셔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옛 밥상의 예의범절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손가락, 젓가락 사용 방법을 몰라 수저를 제대로 손에 쥐고 먹는 아이들이 드물다. 예의범절이 없더라도 하루 동안 지낸 이야기를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이러한 안타까움의 해결책으로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아이에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다. 그 순간 잘못을 깨달았다면 용기를 갖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자.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잘못했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는데도 입 밖에 내지 못할 때 꼭 자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입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하자. “미안해, 엄마가 흥분했구나! 너의 말을 먼저 들어볼게.” 자녀도 한 인격체임을 명심하고 늘 연습하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자녀임을 더욱 명심하며…….

예전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할 때, 돌아가면서 식사기도를 한 경험이 있다. 그 때 좀 더 차분한 식사시간이 되었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도 회개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배려하는 식사시

간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잠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만 분발하여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늘 바쁜 현대인들, 그 중 아버지들의 위치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대화가 단절된 상황 속에 아버지는 자녀들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하다.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아버지들의 불안한 위치는 현 사회의 모습을 통해 더욱 증명된다. 무너진 가정들이 많아지고 외로운 아버지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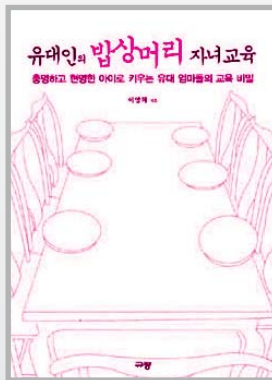
아버지의 위치를 높여가며 가정을 세우는 길은 바로 날마다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으며 새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 온전한 대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바쁜 세상에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노력하여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

어 축복기도를 하자.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는 자녀와 더불어 남편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남편에게 최대한 경외감을 표시할 것이다.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길로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길 소망한다.

항상 웃음과 대화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밥상머리가 되길 또한 소망한다. (신체의 좋은 영양만 가득 들어있는 밥상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밥상 머리가 되어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 가득 넘쳐 나갈 기도한다.)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밥상에 모여 예절을 배우고 가정교육이 실현되며,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음으로 영혼과 육체 모두 살찌우는 축복 또한 함께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용기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느끼며 이 글을 마친다.



첫째 주간

거룩한 습관

사도신경

찬송 : 96(은 세상이 캄캄하여서

말씀 : 눅 22:39~46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 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기도문

‘습관’이란 ‘무엇이든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 굳어진 성질’을 말합니다. 습관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 2의 천성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성패와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몸에 밴 기도하는 습관으로부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마귀의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며, 십자가를 저내는 저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찾아보면, 먼저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시던 습관(막1:35),

안식일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회당에 나가 예배하시던 습관(눅4:16),

기회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시던 습관(막10:1),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행하시던 습관(요8:29),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짧은 공생애의 주어진 시간을 계획성 있게 관리해가시던 습관(막1:36~39)등등 이 모든 거룩한 습관은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만 들었습니다.

당신이 벗어버려야 할 좋지 못한 옛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새롭게 입어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주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도신경

찬송 : 40(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말씀 : 창 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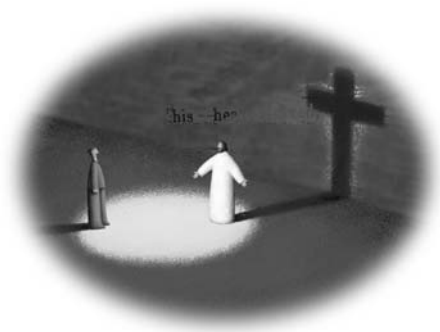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할까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 닮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본 인간은 단지 20여 가지 원소들의 결합체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간이란 결국 ‘38리터의 물, 한 개의 담장을 칠할 수 있는 석회, 2~3번의 사진조명을 할 수 있는 마그네슘, 한 끼의 식사를 하기에 충분한 소금, 세타스의 박스에 담긴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 집안을 한번 청소할 수 있는 양의 암모니아, 한 개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차 한 잔에 넣을 수 있는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치는 몇 만원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그 가치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참된 인본주의의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관해 고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가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성실

사도신경

찬송 : 394(주를 앙모하는 자)

말씀 : 골 3: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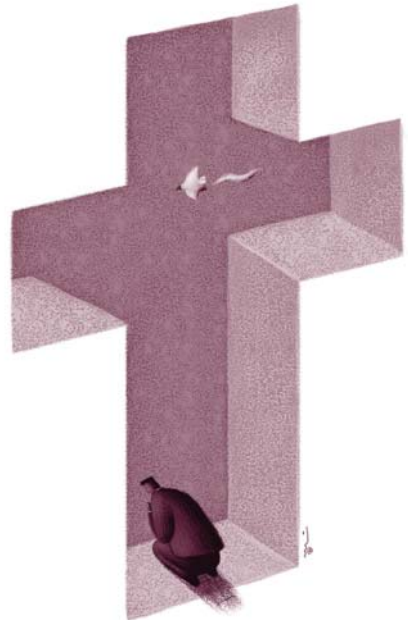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의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기도문

‘성실한’을 뜻하는 영어 단어 ‘sincere’는 원래 라틴어 ‘sine cere’에서 유래했습니다. ‘sine cere’란 ‘왁스 없음(wax not)’이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다보면, 거의 다 완성된 작품을 그만 실수로 어느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런 경우, 당시로는 최첨단 접착제인 ‘cere’, 즉 wax(밀랍)로 다시 붙여서 내다팔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쩌나 감쪽같든지, 보통사람은 좀체 알아차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조각가들은 자기 작품에 ‘sine cere’라고 써 붙이고 거기에 서명하여, 자신의 작품은 절대로 눈가림식의 땀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뒷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적당히 땀질하듯 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 일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보다는, 그곳을 일터로 사명지로 선교지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설령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그 성실함에 대해 반드시 친히 보상해 주실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엔 보응이 따르겠지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sine cere!’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네째 주간

하나님 형상의 도덕적 측면

사도신경

찬송 : 518(신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 엡 4:17~24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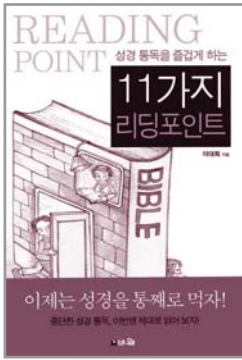
지(知) 의(義) 성(聖).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신약성경의 교훈들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의 원형이 무엇인지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원의(原義)’라고 하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초의 인간은 단순한 무죄상태, 혹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도덕적 중립상태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 및 피조 세계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원초적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는 무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의와 거룩함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방탕, 더러움, 욕심 등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중생과 성화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신 형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총에 합당히 반응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자신과의 선한 싸움이 있는지요?





성경 통독을 즐겁게 하는 11가지 리딩 포인트

올해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1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안다. 단지 1독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이다.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즐겁게 읽어 내려갈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다. 12월에 성경1독을 해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을 성도님들을 기대해본다.

· 저자 : 이대희 · 출판사 : 도서출판 브니엘 · 가격 : 9,800원



십자가의 길 사순절을 위한 40일 십자가 묵상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돌아왔고, 4월이 되면 부활절이 오겠죠. 2007년 사순절의 40일과 부활절을 더욱 깊은 은혜 가운데 누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 특히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통과 수난을 기억하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가슴 깊이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저자 / 역자 : 트리시아 매캐리 로즈 / 김인화 · 출판사 : 예수전도단
· 가격 : 11,000원

冊

樂 이 랑

이승한의 팍페라 앨범 Op.1 - Immortality

언젠가부터 우리들에게 '팍페라'라는 아리송한 장르의 음악이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기 시작했다. 아쉬운 점은 크리스천 팍페라 가수들은 있지만 CCM 팍페라는 없었던 것이었다. 이제, 포근한 바리톤의 음색과 깊이 있는 가사에 은혜받을 수 있는 CCM팍페라 음반이 '이승한'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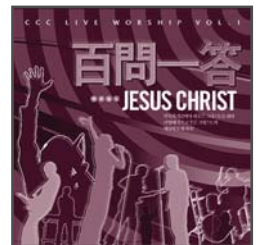
· 가수 : 이승한 · 기획 / 배급 : BJ MUSIC / 다윗유통 · 가격 : 10,000원



CCC 라이브 워십 백문일답 JESUS CHRIST

CCC(한국대학생선교회)의 여름수련회는 일만 여명이 해변에서 일주일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집회로 유명하다. 그 현장의 예배(워십)음반이 처음으로 나왔다. 2006년 여름, 그 뜨거웠던 현장의 감동을 이 음반으로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 가수 : C.C.C.프레이즈 · 기획 / 배급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 다윗유통
· 가격 : 10,000원



제 2 교육위원회

상반기 평신도 성경 대학

2007년 상반기 평신도 성경 대학이 지난 13~16일, 20~23일, 27~28일, 3월 2일에 유년부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신도 성경 대학에서는 오치용 담임목사가 구약총론을 재미있게 강의했다.

이 밖에 박충권 목사가 모세오경, 최정명 목사가 역사서1, 박상영 목사가 역사서2, 김남수 목사가 한국교회사와 성경론

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번 강의에 참석한 한 성도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말씀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로 자리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초등부는 지난 23~24일 양평 국제천문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개최했다.

'신기한 하나님 이야기,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경학교는 우주에 펼친 수많은 별들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신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함으로 겸

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소행성탐사, 천체사진 촬영, 시설 견학, 망원경을 통한 별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박병수 기자

유년부

봄 성경 캠프

23, 24일 이틀동안 진행된 유년부 봄성경학교는 60여명의 학생과 30여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하였다. 하박국 3장 2절을 주제 말씀으로, '부흥여행'을 주제로 요시아의 말씀을 통한 부흥, 느헤미야의 회개를 통한 부흥,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삶의 변화를 통한 부흥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유년부 아이들이 부흥의 정확한 의미는 모를 수 있지만 '부흥미션'을 열심히

수행하고 '부흥있으리라'는 찬양도 잘 불러 참여 열기만큼은 평양 장대현 교회 못지 않았다. 더군다나 봄성경학교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열렸는데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의미가 더했다. 이 밖에 부흥여행, 미니올림픽, 새성전 비전 경진대회, 성경퀴즈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윤혜 기자

교 회

새성전 비전경진대회

본 교회는 지난 2월 한달간 새성전 비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효과적인 새성전 건축 방법 및 운영 질감을 위한 의견을 비롯해 교인들이 새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주일학교를 포함한 전교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예배 후 미니 경진대회에 참가하거나 교회 내

설치된 응모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성전 비전경진대회에 참석한 한 성도는 "새성전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새성전 건축을 위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사회봉사위원회

장애우 창립예배

지난 24일 장애우 센터(구 당회실)에서 장애우 창립예배를 드렸다.

창립예배에는 당회실을 내어 준 많은 장로님들이 참석했고 살롬중창단과 한우리크로마하프단의 아름다운 찬양과 수화 특송이 있었다. 오치용 담임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나와 하나님이 짝이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생활 때까지 부족함이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예배는 매주 11시에 장애우 쉼터에서 드리고 2부 순서는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미술·음악·원예 치료, 놀이활동, 야외학습(봄, 가을), 수련회 및 방학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활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정기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박병수 기자

교 계

3월부터 사용하는 성경 개역개정판

「개역개정판」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61)을 개정한 것이다.

우리말 완역 「성경전서」는 1911년에 출간된 이래, 1938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1961년에 두 번째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1938년판이나 1956/61년판은 「개역」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그대로 불러오다가 그 「개역」이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달리 하여 출판되면서부터 「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옛 철자법을 따른 1938년 「개역」은 점차 보급이 중단되고 「개역한글판」만이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1998년에 개정되어 나온 「개역개정판」은 그 개정의 범위가 이전의 것들보다 정도가 훨씬 크고 넓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주어 「성경전서개역개정판」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고려하여, 꼭 고쳐야 할 부분만을 고쳤다.

- 2) '하다' 체를 사용하여 현대화하지 않고, '하느니라' 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고어체를 유지하였다.
- 3) 인명과 지명 기타 외래어의 음역은 「개역」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개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들만 개정하였다.
- 4) 「개역」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번역 내용의 일부를 고쳤다.
- 5) 오늘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와 한자어는 쉬운 말로 고쳤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22절의 '약대'는 '낙타'로 고쳤다.
- 6) 국어 맞춤법이 달라진 곳을 고쳤다. '일찌기'는 '일찍이'로; '-찌리도'는 '-지리도'로. '찌어다' 같은 것은 '지어다'로 문법에 맞지 아니하는 문장이나 어색한 문장을 다듬었다.
- 7) 장애인 기피/차별 용어를 고쳤다. 예를 들면, '문둥병'은 '나병'으로, '소경'은 '맹인'으로 고쳤다.

임현석 기자

교육위원회

교사연합 사경회

2월 9일~10일 백봉산 기도원에서 교육위원회 주최로 교사연합사경회가 있었다. 약 100여명정도가 참석한 이날 사경회에서는 오치용담임목사, 문병호교육목사(장년부지도), 김석호전도사(고등부지도)등이 강의했다.

문병호 목사는 '교사입니까' 라는 강의로 교사로서의 비전과 책임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전환을, 이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담임목사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비전에 관한 내용을 전하였다.

이어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기도회시간에는 주일학교와 개인들의 기도제목을 상대를 바꿔가며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각 주일학교별 교사들이 앞에 나와 소개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는 담임목사가 80~90여명의 교사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했다. 올 한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느해 보다 많은 값진 열매를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기자

초등부

인사위원회

필사성경 만들기

신임 5교구 심방전도사

초등부 교사들이 성경을 나누어 필사를해서 성경을 만들었다. '왕초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 필사 성경은 단순히 성경을 한번 써본다는 것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본을 보이고 한마음이 되어 초등부를 믿음의 부서로 만들겠다는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열심이 내포가 되어있다. 또한 김범집집사는 왕초바이블에 참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틈틈이 써온 개인 필사 성경을 완성하고 책으로 제본했다.

이종훈 기자

심방전도사 김향경 (5교구)



이화여대 졸업
천안대 신학대학원 졸업
선린교회 유치부교육전도사
서초교회 전임전도사

화보로 보는 이모저모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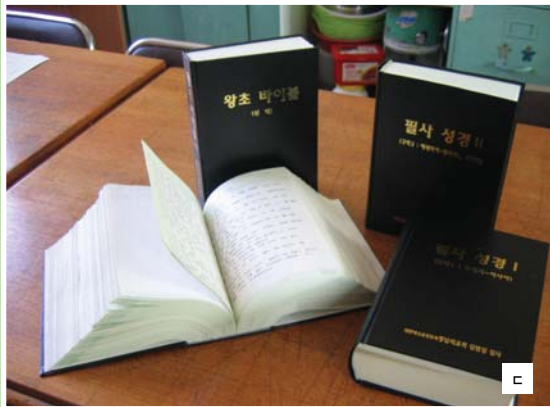
ㄴ



ㄷ



ㄹ



ㅅ



ㅇ



2007년 2월의 왕십리교회 이모저모

- ㄱ. 장애우 예배실에서 드려진 창립예배.
- ㄴ. 평신도 성경대학.
- ㄷ. 초등부교사들과 김범집 집사가 직접 쓴 필사성경.
- ㄹ. 2007 교사 사경회에 참석한 교사들.
- ㅁ. 찬양시간에 앞에서 율동하는 권관수장로와 최영규집사.
- ㅂ.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 ㅅ. 주일학교에서 비전경진대회에 출품된 입체 모형과 그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7시 30분
• 1부 :	오전 9시
• 2부 :	오전 11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 백봉산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 주일 찬양 예배	오후 3시

퐁골어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전 10시 30분
• 1부 :	오전 10시 30분
• 2부 :	동절기 오후 7시 00분
	하절기 오후 7시 3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새벽 5시
• 새벽 기도회 2부	매일 새벽 6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오전 11시
• 유치부	오전 11시
• 유년·초등·중등·고등부	오전 9시
유·초등부 2부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오후 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 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3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최승철 장로 지도 : 박충권 목사
 주관 : 이종훈 집사 기획·행정지원 : 장숙현 집사
 취재 : 박병수 집사(팀장), 임현석·지은정 집사, 이윤혜, 문승환, 서주은
 디자인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객원기자 : 서명은 집사, 이수정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85-4109